

새봄을 여는 음악의 향연

인천 석화사 '가족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개최

3월 24일 석화사 야외공연장서



인천 석화사 주지 자명 스님(사진)이 2013년 새 앨범을 내고 인천 시민과 함께 하는 산사음악회 '새봄, 그리고 환희'를 연다. 3월 24일 오후 2시 석화사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산사음악회에서는 대중 가수들의 무대는 물론 영산재 특별 공연이 펼쳐진다.

주지 자명 스님 찬불가 공연

대중가요·영산재 공연 한마당

공연은 아남카라 혼성 중창단(단장 박봉숙)이 '사박걸음으로 가요리다' '아름다운강산' '향수' 등의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남궁옥분 장미화 씨 등이 출연해 흥겨운 한마당을 펼친다. 영산재 공연에서는 유네스코 등재 무형문화재 제 50호 전수자인 심진 스님, 호산 스님, 청산 스님, 현광 스님 등이 무대에 오른다.

자명 스님은 "이번 공연에서 가족 단위의 대중들이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 석화사는 가족단위의 신행활동을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중과 함께하는 사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쉽게 풀어주는 금강경 강좌 개설, 무료급식센터 보현의 집 개설로 대중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혜숙 기자



석화사는 3월 24일 산사음악회를 연다.

주지 자명 스님은 지난해 10월 석화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꾸준히 포교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이번 음악회를 열게 되었다. 자명 스님은 찬불 음반을 2집까지 발매한 찬불가수로 지난해 1집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에 이어 올해 2월에는 2집 '저자로 내려온 산사'를 내놓았다.

스님은 "2집 앨범은 불자들이 친근하고 익숙하게 접하는 우리말 독경에 명상 음악 기법을 가미하여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새 앨범의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스님은 이번 공연에서도 대중들을 위해 '심불하심시오' '절대꽃' 등으로 음성 공연을 펼친다.

산사음악회는 사시불공 및 경내 미륵전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오후 2시 산사음악회로 이어진다.

박대성 화백 한국화 강의 나서

12월 28일까지 경주박물관서

박대성 화백이 대중들에게 한국화 그림 강의를 진행한다. 박 화백은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에서 '우리 그림 교실'의 강사로 나선다.

1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립경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강좌에서 박 화백은 선긋기를 시작으로 글씨 쓰기, 자연물 그리기, 자화상 그리기 등으로 이어지는 실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

우리 문화와 그림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박대성 화백은 수록화로 한국화의 큰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화단의 중진(重鎮)으로,



박대성 화백이 경주박물관서 그림 강의를 진행한다.

평소 필선을 중시하여 먹 위주의 작품작품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054)740-7536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사업화문(四葉花文) → 사면보주(四面寶珠)

우주 생명력 극대화 시킨 조형언어

미술사학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四面寶珠'를 보고 널리 '四葉花文'이라 부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모두가 보주라는 것을 모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네 개의 보주를 합쳐 놓은 모양을, 꽃잎이 네 개를 합쳐 놓은 무늬인 사면보주라고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며, 모두가 그러하니 아무도 바로잡아 주지 못했다. '사업화문'은 '사면보주'이다. 나는 이미 40년 전에 '寶珠의 思想'이라는 논문을 써서 사면보주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으나 그 때만 해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충분히 해석하지는 못했다.

우선 사람들은 보주가 무엇인지 모른다.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호기심마저 없다. 그 까닭을 거슬러 올라가 찾아보니 바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귀면(鬼面)'에서 비롯하였음을 알았다. 귀면의 입에서 항상 식물 덩굴모양 영기문이 나오고 미술사학의 가장 중요한 조형이나 현상을 100년 동안 지나친 것이니 불교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기문이나 보주의 본질을 추구할 기회도 없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귀신의 얼굴 정면 표현한 귀면을, 용을 정면에서 본 얼굴인 용면(龍面)으로 새로이 인식하여 바꾼 것은 미술사학 연구에 큰 획을 긋는 것이다. 2000년에 내가 처음으로 주장한 이래 12년 만에 비로소 국립박물관에서 귀면이란 용어가 사라지고 작품 설명 카드에 용면와(龍面瓦)로 고쳐지게 되었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보주 '무량' 용의 입에서 보주가 한 개 나오는 도상이 있고, 두 개 나오는 모습도 있고, 세 개 나오는, 네 개 나오는 도상이 있는데, 그때 각각 1면 보주, 2면 보주, 3면 보주, 4면 보주라 부른다. 면(面)이란 개수를 말한다. 이런 용어는 동양미술사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다. 그러면 우리 학계나 종교계에서는 왜 가장 중요한 용어를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것일까. 종교계에서는 대부분 학계의 오류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보주를 이해하려면 용을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용의 정면 얼굴을 표현해 아반 입에서 보주가 나오고 영기문이 나오는 것을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용을 옆으로 길게 나타내면 모두가 용인 줄 알지만, 용의 정면 얼굴을 보면 누구나 귀신의 얼굴이라 부른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용의 옆모습에서는 보주나 영기문이 나오는 것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런 표현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용의 입에서 영기문이 나오고 보주가 나온다는, 미술사 연구에서 가장 중대한 조형을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용의 입에서 보주가 몇 개 나오는 것일까? 용의 입에서는 하나나 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날 일본의 노학자에서 물었다. "용의 입에서 보주가 몇 개 나오니까?" 답하기를, "하나"라고 단호히 말한다. 설명하기를,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고 무량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주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

연꽃의 경우는 씨방의 씨앗들이 무량한 보주가 된다는 것을, 씨방을 사면보주 모양으로 표현하였는데, 사람들은 씨앗이 보주가 된다는 차원 높은 형이상학적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흥미롭지 않은가! 함께 물을 상징하는 용과 연꽃에서 사면보주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아무 의미 없고 틀린 용어가 금방 널리 퍼지며 상식이 되

용과 연꽃서 사면보주 나와

무량보주 의미하며

무한한 생명력 발산 상징

어버리며, 그 오류를 증명하여 고쳐서 설명하면 알아듣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까닭은 틀린 용어를 쓰는 사람은 틀린 삶을 살기 때문이며, 따라서 올바른 용어와 설명을 들려주면 차원이 높은 내 용이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학문하는 사람은 교양 있고 차원 높은 삶을 항상 추구해야 한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써야 아무 것도 모르는 대중이 이해하기 쉽다 현실'에 크게 실망한 적이 있다. 중요한 내용을 아무리 정성껏 증명하여 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단지 평생 단순한 사실만을 지식으로 축적하여 왔기 때문이다. 사고력의 상실이고 영성(靈性)의 상실이다. 본질과는 관계없는 에피소드만을 써 달라고 원고 청탁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사회가 천박해 지고 있는데, 예술작품은 어떤 의미에서 문자언어로 전해지는 종교사상보다 정신적 차원이 더 높고, 함유하고 있는 상징이 더 심원하므로 일상생활은 점점 진실과 멀어져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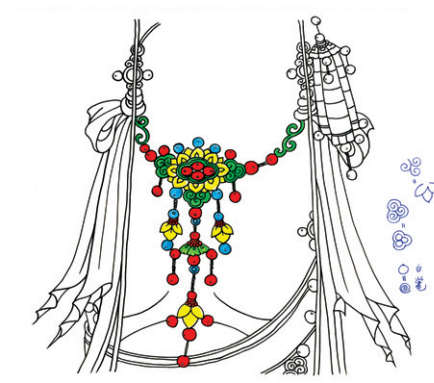
그림① 신경유씨 복식 세부, 씨방을 사면보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림② 용머리, 입에 사면보주가 있다.



그림③ 월성출토 타원형 의당, 씨방 부분에 사면보주가 있다.



그림④ 고려수월관음 가슴걸이. 장식이 아니다. 중심의 사면보주에서 사방으로 무량하게 보주가 생겨난다.

그 점을 자각하여 오류를 지적하며 틀린 점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무관심하니 어찌할 것인가!

향로 복식 기와에도 수없이 등장

네 개의 꽃잎 무늬란 아무 의미가 없다. 한국미술은 불교미술이다. 한국미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형인 사면보주를 사업화문이라 부르는 것은 한국미술을 모독하는 것이다. 가장 고귀한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사면보주이다. 사면보주란 네 개의 보주를 합쳐 보주가 품고 있는 생명력을 극대화한 것이다. 보주를 다섯 개 합친 오면보주의 조형은 없다. 그러므로 사면보주가 일면보주나 삼면보주보다 한층 위력이 있고 조형적으로도 아름답다. 즉 사면보주란 무량보주를 의미한다. 씨방 안의 만물생명의 근원인 씨앗이 무량한 보주가 되어 우주에 충만하다는 매우 고차원의 상징을 띠고 있다. 그리하여 사면보주의 조형이 향로나 복식(사진 1)이나 의당(사진 2, 사진 3)이나 불화(사진 4)에 수 없이

표현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 조형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면 보주란 무엇인가?

보주는 딱딱한 광물 보석이 아니다. 보주 안은 텅 비어 있고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기(생명력)가 충만하여 있거나, 무량한 보주들이 나오거나 한다. 그래서 보주에는 항상 구멍이 있다. 여래조차 보주에서 탄생하니, 보주는 만물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보주를 네 개로 합친 것은 보주의 생명력을 극대화한 것이며 무량보주를 상징한다. 보주 하나에서도 무한한 생명력을 발산하는데 사면보주에서는 더욱 강력한 생명력이 발산하여야 마땅하다. 그 가장 강력한 네 개의 보주는 경배의 대상이기도 한데 아무 의미 없는 '네 꽃잎'이라 부르니 이 무슨 허망한 것인가!



강우방 (일한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개정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1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4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 추천본사 - T.033-243-1795, 243-1787 • 불서총판 운주사 - T.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